

## HOKKAIDO MARATHON 2012

### 우호교류지역 선수 참가

제 26회 홋카이도 마라톤대회가 지난 8월 26일 개최됐습니다. 홋카이도 마라톤은 서울과 홋카이도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서울 국제마라톤과도 자매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대회에 선수를 초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대한민국 민간 홋카이도 지방본부의 협조로 우호교류지역인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에서도 10명의 직원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대회에 앞선 24일에는 초대선수를 환영하는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홋카이도청 마라톤클럽 회원들과 한국어강좌 수강생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도쿄의 유명한 스포츠클럽인 Second Wind AC의 가와고에 감독과 마나베 코치도 참석해 선수들에게 대회를 위한 컨디션 조절, 기록 단축하는 법 등 여러가지 어드바이스를 전했습니다.

대회 당일인 26일은 오전 9시, 오도리공원의 TV탑 전망시계판을 사용한 카운트다운으로 초대선수를 비롯한 11243명의 참가자가 일제히 출발지점을 나섰습니다. 출발 시간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55%.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이 시원한 홋카이도라고는 해도 여름에 뛰는 마라톤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참가자의 78.9%인 8981명이 끝인지점을 통과했고 한국의 초대선수들도 대부분 완주를 해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홋카이도 마라톤은 제 1회 대회 439명의 참가자로 시작해 올해는 처음으로 1만 명이 넘는 11243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국내 선수들은 물론 해외 선수들의 참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에서도 우호교류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홋카이도 마라톤에 참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라톤 당일 아카레가 구청사 앞에서 화이팅을 다지는 우호교류 지역 선수들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42.195km를 완주하고 목에 메달을 건 경상남도 선수~



## 新・ご当地グルメグランプリ北海道2012

## 지역 미식 그랑프리 홋카이도

No.1

別海 벳카이



점보가리비버거

3년 연속 1등의 영광을 차지한 점보가리비버거! 바다에 접해 있는 벳카이에서 잡히는

큼지막한 가리비로 춘권을 만들어 빵사이에 쫄~ 바삭바삭함과 탱탱한 가리비살이 일품입니다. 벳카이는 일본 제일의 생유를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빵의 재료도 벳카이 우유와 홋카이도산 밀가루만을 사용. 2008년 탄생한 점보가리비버거는 현재 벳카이 지역내 6개의 점포에서 판매중이며, 벳카이 우유와 세트로 먹으면 더욱 맛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TV를 켜면 반드시 어느 한 채널에서라도 미식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일본사람들이 음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 때문인지 최근에는 지역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한 요리로 경연하는 이른바 '지역 미식 그랑프리'가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도 수년전부터 '지역 미식 그랑프리 홋카이도'가 개최되고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대회 당일 회장을 찾은 손님들이 음식을 직접 먹은 뒤, 인기도, 비용효과, 맛의 3가지 부분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올해 대회는 7월 7-8일 이틀간에 걸쳐 벳카이(別海)에서 개최됐습니다. 총 12곳의 지역이 대회에 참가했고 약 2만 2천명이 회장을 찾았습니다. 85.8%의 투표율로 결정된 올해의 1위는 대회 개최지인 벳카이의 점보가리비버거가 차지했습니다.

내년 대회는 옥수수콘 볶음밥을 개발한 도카치 메무로(十勝芽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No.2

十勝清水

도카치 키요미즈



조각 소고기 스테이크 덮밥

홋카이도 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흰밥 위에, 부드러운 스크램블에그를 올

린 후, 미소(일본된장)로 구워낸 소고기 로스를 얹은 덮밥! 도카치 지역은 홋카이도내 제 2의 육용우 생산지역으로 이 덮밥에 사용되는 소고기는 담백하고 육즙이 있는 고기를 사용.

조각소고기 스테이크 덮밥은 도카치 지역내 11곳의 점포에서 판매중이며 가격은 1000엔 이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No.3

南富良野 미나미후라노



에조사슴 커틀렛카레

에조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 그 피해와 처리문제에 골치아픈 홋카이도.

2008년 미나미후라노에 에조사슴 해체처리시설이 생긴 것을 계기로 에조사슴고기 요리로 고안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모든 사람들이 즐겨먹는 커틀렛으로 탄생! 여기에 후라노의 명물 카레를 접목한 것이 에조사슴 커틀렛카레.

10개 점포에서 950엔에 판매중.

No.4

根室 네무로



퐁치 롤초밥

홋카이도 최동단 네무로는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에 접해 있는 최고의 어장. 그 중에서도 퐁치는 일본 제 1의 어획량

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네무로에서 나는 다시마를 요리의 하나로써 정착시키고자 하는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퐁치 롤초밥. 퐁치와 다시마의 조화가 특이하고 맛있는 식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현재 네무로 내 7개 점포에서 개당 105엔에 판매중.

No.5

富良野 후라노



오므라이스 카레

일본의 국민식인 카레에 조금 더 특별함을 더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오므라이스 카레. 모든 재료는 후라노산을 사용

하고 쌀도 엄선된 것만을 사용. 완성된 후에는 정중앙에 귀여운 깃발을 꽂는 것이 특징. 깃발에는 배꼽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후라노가 홋카이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13 점포에서 1000엔 이하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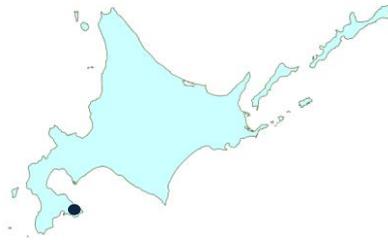
홋카이도의 남부에 위치한 하코다테는 삿포로와 아사히카와에 이어 홋카이도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구 28만 명의 항구 도시입니다. 1859년 일본의 나가사키·요코하마와 함께 일본 최초의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했고 그 당시 지어진 서양식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하코다테의 야경은 홍콩·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야경이라고도 불리기도 해 연간 많은 관광객들이 하코다테를 찾고 있습니다.

하코다테는 현재 한국 고양시를 비롯해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중국 톈진시, 캐나다 헬리팩스시 등 6개의 외국도시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2006년부터 인천-하코다테 간 항공편이 주 3회 운항되고 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낭만도시

하코다테 (函館)



하코다테까지는 어떻게 가요?

♥ 한국에서 출발시  
인천-하코다테 간 항공편이 주 3회 화,목,토 운항중이며,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

♥ 삿포로에서 출발시  
1일 11회 운항중인 특급열차를 이용하면 약 3시간 정도 소요.



세계 3대 야경 중의 하나!

하코다테산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세계 3대 야경에 손꼽히며 미슐랭 가이드에 별 3개로 수록돼 있습니다. 시가지의 화려한 불빛과 그 양쪽을 에워싸고 있는 밤바다의 어둠이 만들어내는 대조감과 아치형의 모양은 하코다테 야경만의 특징입니다.

야경은 내려다보는 각도가 10도일 때 가장 잘보인다고 하는데, 높이 334미터의 하코다테산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딱 그 각도라고 합니다. 정상까지는 보통 로프웨이를 이용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정상까지 이어진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도 추천합니다. 1시간 소요.



고료카쿠 공원 / 타워

개항 이후 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에도막부가 세운 별 모양을 한 성곽입니다.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성곽으로 메이지유신 당시 구 막부군과 신정부군이 싸운 하코다테 전쟁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성곽은 철거되고 그 곳이 공원으로 개방되어 현재는 특별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높이 107미터의 고료카쿠타워가 있어 별 모양을 한 옛날 성곽의 흔적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에 심어진 약 4천그루의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공원은 놓칠 수 없는 경치 중의 하나입니다.



이국적인 모토마치 언덕

하코다테산 기슭에 자리한 모토마치는 바다를 향하는 19개의 가파른 언덕이 항구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개항 후 교회와 성당, 수녀원, 외국인 거주지, 외국인 묘지가 있던 지역으로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어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구 하코다테 공회당과 하리스토스 정교회, 구 영국 영사관 등이 있으며 실내 견학도 가능합니다.



가네모리 아카레가 창고

하코다테항구에 위치한 카네모리 아카레가 창고는 무역이 활발하던 시절 창고로 쓰였던 건물로 '아카레가'는 붉은 벽돌을 의미합니다. 1909년에 세워진 이 창고는 현재는 7개 동의 내부를 개조해 아기자기한 유리제품, 오르골, 기념품가게,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창고 바로 근처에 위치한 메이지관은 1911년에 세워진 하코다테 제 1호 우체국으로 이곳도 붉은벽돌의 건축이 특징입니다.

< 유노카와온천 / 노면전차 >



해안가를 따라 22개의 온천 여관이 늘어진 유노카와 온천가는 홋카이도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온천입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홋카이도 안에서 노면전차가 아직 운항 중인 곳은 삿포로와 하코다테. 시내 관광시에도 노면전차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하코다테를 대표하는 먹거리 ♥



♪시오라멘-한국말로 풀면 소금라면. 일본 라멘의 발상지라고 여겨지는 하코다테의 시오라멘은 돼지뼈와 닭의 갈비 등에 소금을 넣고 푹 고아 만든 스프의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오징어소면-아침에 갓 잡아올린 싱싱한 오징어를 가늘게 썰어서 먹는 오징어회는 하코다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럭키피에로 햄버거-하코다테에만 있는 체인 햄버거 가게. 닭고기를 큼지막하게 튀겨내 특제소스를 묻힌 버거가 인기!

◆고양시와 자매도시 체결!



<사진> 하코다테시에서 열린 자매도시 체결식

하코다테시는 대한민국의 고양시와 2011년 8월 1일 하코다테시에서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